

2007. 3.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별 첨 : 1. 의원서명서 1부.

2.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안 1부.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인) 
외 4인

(찬성자 서명 별첨)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안
발 의 서 명 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劉永和	이영화	
成明重	성명중	
尹明장	윤명장	
이상주	이상주	
조덕희	조덕희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안

의안 번호	1139
----------	------

발의연월일 : 2007. 3.
발의자 : 유영화의원외 4인

1. 주 문

- 충주와 강원지역 연결 철도는 반드시 충주~제천~영월~평창지역을 경유하도록 건의 바랍니다.
 - 중부내륙지역은 정부차원의 항구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임.
- 「충청고속도로」 역시 제천~영월~평창지역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외국관광객 동선을 판단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청주국제공항에서 충주~제천~영월~평창으로 이어져야 함.
 - 향후 중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와의 분기점을 제천으로 할시 국내 물류비용 최소화 효과 기대
- 그간 국가발전축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에 특단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 현재 추진중인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 입안 시 그간의 소외감이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요망.

2. 제안이유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 중 2019년 까지 기초수정안에 충주에서 강원지역으로 이어지는 철도계획이 충주~원주로 그리고 충청고속도로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충주~원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그간 경부축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인 제천, 영월, 평창 지역으로 철도 및 충청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낙후된 중부내륙지역 발전 도모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님, 한국교통연구원장님, 충청북도지사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14만 제천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 2월 23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 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2019년까지의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기초수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한다 하였습니다. 발표된 기초수정안을 살펴보면 충주지역에서 강원지역으로 이어지는 철도건설계획이 충주에서 원주로 연결되는 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바, 이에 대하여 우리 제천지역은 물론 그동안 국가발전 측에서 소외되어온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건의하오니 본 건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충주와 강원지역 연결 철도는 반드시 충주—제천—영월—평창지역을 경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초수정안에 연결지역으로 포함된 원주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거 강원도의 혁신도시·기업도시로 선정되어 향후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며, 또한 수도권 발전권역축과도 연계된 지역으로 이중 삼중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인 반면, 우리 제천 시와 인근 중부내륙 중소도시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과

태백권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인 지역경제침체 현상을 맞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항구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인바, 충주에서 강원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는 반드시 제천-영월-평창을 거쳐서 강원지역으로 연결되도록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 : 「충청고속도로」 역시 제천-영월-평창지역으로 경유되어야 합니다.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추진 중인 충청고속도로 역시 충북 북부 지역인 제천을 거쳐 강원지역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충청 고속도로 건설 준공 시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중앙고속도로와 동서고속 도로 그리고 충청고속도로의 분기점을 제천지역으로 할시 국토 동서·남축의 도로망 연결 원활로 국내물류비용 최소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외국관광객 동선을 판단 시,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청주국제공항에서 충주-제천-영월-평창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 동서고속도로의 활용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 그간 국가발전 축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에 특단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충북북부지역인 제천과 단양, 강원남부지역인 평창과 영월 그리고 경북북부지역인 영주지역은 그동안 경부발전축의 상반된 지역인 중부 내륙에 위치함으로써 국가발전 축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바,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 계획 입안 시 그간의 소외감이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되어 제천 시민의 염원인 제천교육연수타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위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및 충청 고속도로의 제천-영월-평창경유 여·부가 우리 중부내륙지역으로서는 지역발전의 커다란 봉기점이 되는 지역 최대 현안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14만 시민과 제천시의회 전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건의 하오니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23.
제천시의회 의원일동